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보도자료

제공일 : 2009. 4. 20.

제공자 :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품종심사과

과 장 : 심재규(유통과), 조일호(심사과)

담당 : 정은선 연구관, 양미희 연구관

전화 : 031-467-0145, 467-0174

쪽 수 : 4P

별첨자료 : 있음(5P)

이 자료는 2010년 4월 2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종 진위(眞僞) 검사 강화로 종자 유통질서 확립

- 허위 신고품종 자진 취하기간(4.20~6.20) 운영 -

□ 국립종자원은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중 유통종자에 대한 품종 진위(眞僞)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립종자원은 같은 품종을 명칭만 바꿔 유통시키거나 생산·판매 신고 품종과 다른 품종을 유통시키는 관행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개발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활용하여 시중 유통종자에 대한 품종 진위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DNA기술을 이용한 품종 진위 검사 : 품종을 식물체의 색깔,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각 품종이 가진 고유의 DNA를 비교하여 품종을 확인하는 기술

○ 동일 품종의 종자를 ① 품종명칭만 바꿔 새로 개발된 품종인 것처럼 유통하는 경우, ②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한 종자와 품종특성이 다른 품종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품종 선택의 혼란과 품질 및 가격차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는 종자산업법 제138조에 의거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업자는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시험 등에 이용하기 위해 신고 품종의 종자를 보관·관리하고 있음

□ DNA 분자표지를 이용한 품종진위 검사기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같은 원리로서, 그 동안 국립종자원은 고추·양파·복숭아·벼 등 주요 14개 작물에 대해 품종식별이 가능한 DNA 분자표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주요 품종에 대한 DNA D/B를 구축하였다.

○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DNA 분자표지를 활용하여 수박·배추의 시중 유통종자에 대해 품종 진위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신고한 종자와 다른 종자를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된 종자업체에 대해 해당 품종의 판매 중단 및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자진 취하토록 권고한 바 있다.

□ 국립종자원은 올해 유통실태 조사결과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고추·수박·오이·토마토·양파 5작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품종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채소작물뿐만 아니라 버섯·과수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검사결과를 관련 협회에 제공하여 종자업체의 유통개선 자정(自淨) 노력을 촉구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신고한 종자와 다른 종자를 유통시키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173조)
- 영업정지 90일(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2조)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품종진위 검사 강화로 그 동안 종자유통 질서를 문란시켜 농업인의 품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유통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은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6월20일까지 2개월간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종자에 대해 신고 자진취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3차 동아시아 품종보호 포럼 및 국제세미나 개최

- 2010. 4. 28(수)~4. 30(금), 서울 팔래스호텔 -

-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2010.4.28일부터 3일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3차 동아시아 품종보호포럼(EA PVP)』 및 『품종보호제도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동아시아 품종보호 포럼은 아시아 지역내 품종보호시스템의 상호 조화 및 국가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07.11월 ASEAN + 3 장관회의에서 합의하여 '08년 설립되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동아시아 품종보호포럼(EA PV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 및 옵서버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유럽연합, 국제미작연구소(IRRI),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호주, 미국, 등 19개국과 국내 관계기관 등 50 여명의 종자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전년도 사무국의 활동실적, 3차 사무국 한국의 활동계획 및 13개 회원국의 국별보고와 함께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지역 간 심사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포럼기간 중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UPOV 사무국, 유럽연합·국제미작연구소(IRRI)·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중국·일본·호주·미국 등 9개국(기구)의 대표들의 발표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가의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각국 정부 기관 등 공공분야의 역할과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 분야와 민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품종보호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단계인 아시아 국가들에 발전방향(Role model)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국립종자원은 이번 포럼회의와 국제세미나를 통해 품종보호제도 운영 모범국으로서 아시아 국가의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에 기여하여 품종보호제도 조기정착 등 아시아 지역 내 품종보호제도 확산과 국가 간 협력 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관련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 및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품종보호제도와 종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I. 유통종자 품종 진위(眞僞) 검사 강화 계획

□ 추진배경

- 같은 품종을 품종명칭만 바꿔 다른 품종인 것처럼 유통하는 경우와 『생산·수입판매신고』한 종자와 품종 특성이 다른 품종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품종 선택의 혼란과 품질 및 가격 차이로 인한 피해를 초래
- 또한 이러한 관행이 품종보호권 침해로 발전되어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내 종자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DNA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종자유통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08년 이전)까지 종자유통조사는 현장에서 품종명, 용량, 발아율,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등을 지도·단속

□ 추진경과

- 그동안 품종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재배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유통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에 한계
 - 최근 들어 DNA기술 개발로 분자표지를 이용한 품종 진위(眞僞)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통종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추진
 - 14작물(채소9, 과수1, 화훼1, 식량3)에 대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 '08~'09년 수박·배추를 대상으로 신고종자의 유통실태를 시범적으로 조사하고 DNA분자표지를 활용하여 품종 진위를 검사한 결과,
 - 6개사의 수박 11품종이 신고종자와 다른 종자를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남
- ※ 검사내역 : 수박 13개사 44품종, 배추 14개사 35품종

□ 2010년 품종 진위(眞僞) 검사 및 조치계획

○ 주요작물의 품종간 DNA D/B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종자 유통 우려가 큰 작물을 우선 선정하여 품종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작물 확대 추진

- 품종간 동일성 검사 : 고추(167품종), 수박(62)

- 유통종자와 신고종자간 검사 : 고추(30), 수박(30), 오이(44), 토마토(28), 양파(30)

※ 검정대상 확대 계획 : ('09) 2작물 → ('10) 5 → ('11) 8 → ('12) 12

○ 검사 결과를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종자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촉구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품종은 생·판신고 자진취하 유도

- 금년도는 홍보·계도를 거쳐 '11년부터 신고종자와 다른 종자를 유통 시킨 업체는 생산·수입판매신고 위반으로 의법 조치(고발) 계획

※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173조)

- 영업정지 90일(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2조)

○ 4.20~6.20일까지 2개월간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자진취하기간 운영

<유통종자 품종진위 검사 실적>

○ 수박, 배추 시중 유통종자에 대한 품종 진위 검사('08, '09)

- 신고 품종과 다른 품종을 유통시킨 수박 11품종은 업체가 자진취하 신고

○ 민원신청에 의한 품종진위 검사 결과 신고품종과 다른 품종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생·판 미신고로 고발 조치('08. 2개업체/수박·배추)

○ 종자산업법 규정에 위반되는 「생산·수입판매신고」 자진취하기간 운영('09)

- 14개사 13작물 73품종 취하(고추22, 수박12, 무8, 배추8, 양파8 등)

품종식별을 위한 DNA 분자표지 개발 현황

□ 현황 및 목적

- DNA분석 기술개발로 분자표지를 이용, 재배시험을 거치지 않고 품종의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
- 분자유종, 종자분쟁, 품종보호침해 발생시 재배시험과 함께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수단으로 국내외에서 연구·개발이 활발
- 품종식별기술 개발·활용을 통한 품종보호권 강화 및 체계적 종자유통관리로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종자산업발전 도모

□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현황

- 총 14개 작물에 대해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체계 구축

구 분	개 발 작 물	계
채소(9)	고추, 수박, 멜론, 토마토, 배추, 참외, 무, 오이, 양파	14작물
화훼(1)	장미	
과수(1)	복숭아	
식량(3)	벼, 보리, 콩	

※ '10년 현재 총 6건 관련 특허 등록 추진

- 실시간 품종 비교·확인을 위한 DNA 분자표지 D/B 구축현황
- 수박(281품종), 배추(328), 참외(88), 오이(102), 복숭아(96), 보리(71), 콩(95)

□ 품종식별 분자표지 활용 실적

- 품종보호침해 : ('08) 1건 → ('09) 1건 → ('10) 2건
- 종자분쟁(품종진위 확인) : ('07)1건 → ('08)4 → ('09)5 → ('10)3
- 유통조사(품종진위) : ('08)2작물/36품종 → ('09)2/43 → ('10) 5/391
- 보급종 순도검정 등

Ⅱ. 제3회 동아시아 품종보호포럼 및 국제세미나

1. 제3회 동아시아 품종보호포럼

□□ 개최배경

□ ASEAN+3 장관회의('07.11, 방콕) 동아시아 품종보호 포럼 설립 합의

- 아시아 지역내 품종보호시스템의 상호조화 및 국가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EA PVP 포럼(East Asia Plant Variety
Protection Forum)을 설립

- 그 동안 일본 동경에서 제1차 포럼회의('08.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09. 4월)

□ 제2차 포럼회의에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함

□□ 일시 및 장소 : '10.4.28. 13:00~17:00,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층)

□□ 참가대상 : 50여명(외국인 40, 내국인 10)

□ 정부대표 : 13개국(각 2명), 26명

- 대한민국, 일본, 중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UPOV 사무국 및 옵서버 : 약 10여명

- EU, 호주, 미국, 국제미작연구소(IRRI),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 국내 전문가 : 농식품부, 종자원 및 산림품종관리센터 등 10여명

□□ 주요 의제

- 제2차 사무국 중국의 '09년 활동경과 보고, 포럼 발전방향 논의
- '09년 품종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13개 회원국의 국가별 보고
- 한국의 2010년 활동계획 보고 및 제4차 회의 개최지 선정

□□ 포럼에 기반한 협력활동

- 식물품종보호제도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연수 프로그램 제공(한국, 일본)
- 출원양식·재배시험 방법의 조화, 품종등록정보(DB) 공유
- 침해사례에 관한 정보교환, 품종식별을 위한 DNA분석 기술협력

2.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국제세미나

□ 목 적

-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공공분야의 역할과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의 협력 방안 모색
- 제도도입 단계인 아시아 국가 정부기관의 모델 제시

□ 일시 및 장소 : '10.4.29. 09:00~17:00,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층)

□ 참석자 : 110명 (외국인 40, 내국인 70)

- 외국인 : UPOV 및 EA PVP 회원국 35명, 옵서버 5
- 내국인 : 농식품부, 농진청, 국립종자원, 산림품종관리센터, 특허청, 종자연구회, 한국종자협회, 육종가협의체 등

□ 주제 : 품종보호제도에 있어 공공분야의 역할과 향후 전망

□ 주제 발표자(9명) : UPOV 사무국·한국·일본·중국·프랑스·호주·미국·IRRI·APSA 각 대표

□ 진행 : 국립종자원 최근진 연구관(UPOV 의장)